

대학생과 근로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 주 리·공 인 숙·김 영 주·민 하 영·이 점 숙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전공·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전공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and Adolescent Workers

Lee, Ju Lie · Kong, In Sook · Kim, Young Joo · Min, Ha Yeoung · Lee, Jeom So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Division of Living Science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Suncheon, Korea.

Dept. of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Ulsan, Korea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Daegu, Korea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d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for both college students and adolescent workers, and it was focused on determining whether different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were needed for college students and adolescent workers. The participants were 254 college students in Suncheon and 135 adolescent industrial workers in Ulsan. Data were gathered via questionnaires and two-way ANOVA analyses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sex and social status (college student, versus adolescent industrial worker), and by age and social status were perform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sex, age, or social status, and no 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parenting effectiveness depending on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education program experience. Among the predictors (sex, age, social status,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 education experiences) adolescents'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was the strongest variable for predicting parenting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the results confirmed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that family influences children's belief systems about parenting effectiveness in the microsystem. Furthermore, the results indicate that a different parenting education program is not needed for college students and adolescent industrial workers, respectively;

접수일: 2004년 1월 21일 채택일: 2004년 4월 20일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Lee, Ju Lie Tel: 82-2-820-5730

Fax: 82-2-820-5115 E-mail: julie@cau.ac.kr

instead, a more comprehensiv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ll adolescents - regardless of social status is needed. And based on the present study's results, the importance of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was also confirmed. From a broader social perspective, all adolesce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parenting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parent education program, college students, adolescent workers

I. 서 론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관계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특성들로 인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첫째, 가족구조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핵가족화 및 소규모 가족화와 1인 가구의 급증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형태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가장 중요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여성 가구주 가족 등이 증가하여 전형적인 가족유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핵가족화에 따라 원가족에서의 자녀양육 지원이 어려워지므로 부모됨과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이혼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재적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정원·이기숙 1999). 둘째, 가족기능의 변화에 있어서는,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사회가 다원화, 이질화, 전문화되면서 이 기능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가정 외로 이양(移讓)됨에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 및 사회화에 있어서 제3자적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 부부의 이혼·별거 등에 의한 가족해체로 버려지는 자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에 관한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가족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

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의 시장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와 놀이하는 방법, 가정에서 유아용 교재교구를 손쉽게 만드는 방법과 같은 양육 기술을 교수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가족관계의 변화측면에서는,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든가 자녀 양육과 같은 가사일의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사고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배적인 편이다. 가부장적 가치관에 남편들은 상당히 동조하고 있으나 부인의 동조비율은 최근 낮아졌고,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민주적·허용적, 그리고 자녀 중심적으로 변화하였다. 한편, 최근 경제상황이 보다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및 가족해체 증가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2001년에는 전곡 이혼 건수가 13만 5천 건이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1만 5천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혼하는 부부의 과반수 이상이 자녀가 있는 상태이다. 200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3만 5천쌍의 이혼 부부 중 이혼 당시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쌍은 9만 5천 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 중 약 3분의 2 이상이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였다(박성연 등 2003).

이는 경제구조나 빈부격차와 같은 보다 구조적 원인에 의한 한국 가족의 불안정 가능성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실질적 변화, 즉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보편화를 말해준다. 가족해체의 증가는 자녀유기 및 학대, 노인부양,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가족·학교폭력 등 관련 사회문제의 발생을 증가시켜 사회안정 및 통합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된다(김경신 1998).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 가족이나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도 이혼 시, 혹은 가족 해체

시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전반의 이혼이나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가족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대학생과 함께 공업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부모교육이라 한다면, 대부분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과 청소년 근로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의 부모교육은 장차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가족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자신의 부모에 제한된다. 이러한 자신의 부모의 부모역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배우으로써 해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가족 내에서 조카나 동생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미리 부모역할을 연습하던 기회도 거의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 청소년들의 상황이다. 이처럼 좋은 부모역할을 보고 배우거나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교육을 하는 것은 이들이 장차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한다는 효과를 가지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한국 부모교육학회 1997).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학생과 근로자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은 대학생의 경우 이미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해 부모교육에서 다루는 일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연유한 부모역할에 대한 신념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을 부모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을 위해 각 집단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이다.

부모의 양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설명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인지적 요인은 부모의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자녀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킬 수 있다.

양육에 관한 인지적 요인으로 최근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요인은 Bandura의 자기 효능감을 자녀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 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이다. 따라서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Dorsey 1999)이나 효율적으로 양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모 자신의 자신감(Teti · Gelfand 1991)으로 정의될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행동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라는 연구결과(최형성 · 정옥분 2001)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높은 가정의 아동이 사회적 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태형 2002; Rodrigue et al. 199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능력과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함으로써 아동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신숙재 1997; 최형성 · 정옥분 2001; Coleman · Karrake 1997; Dumka et al. 1996; Teti · Gelfand 1991)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자녀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으며, 부모역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육효능감 연구는 모두 현재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모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며, 양육 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여 양육 효능감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양육효능감의 결과일 뿐 어떠한 변인이 양육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과 근로자 집단의 자녀 양육 효능감을 파악하여 부모 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집단의 학령기 양육경험을 파악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자기 인식 증진을 위한 적합한 교육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인식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자녀 양육 가치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한편, 각 집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를 파악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적합한 정보 제공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특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를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 1.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1.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2.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3.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지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4.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5.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아동기 양육 경험, 양육 지식 및 부모교육 경험 유무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각각의 특성화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자 연구대상자를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로 하였다. 순천지역 대학생 254명과 울산지역 근로자 135명이 연구대상이다. 순천 지역 대학과 울산 지역 공단에서 조사자를 임의표집 하였다. 질문지 배부 후, 현장에서 응답하도록 요구했으며 20분 정도의 응답시간 후 현장에서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 166(42.7%), 여자 223(57.3%), 19-21살 205(52.7%), 21-31살 184(47.3%), (참고: 연령을 21살 기준으로 나눈 것은 연령 분포 상태를 고려 50%씩 배분하기 위함)의 분포를 보였다. 대학생 254(65.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lass	College students n=254	Adolescent industrial workers n=135	Total n=389
Sex	male	92(36.2)	74(54.8)	166(42.7)
	female	162(63.8)	61(45.2)	223(57.3)
Age	19-21	202(79.5)	3(2.2)	205(52.7)
	more than 21	52(20.5)	132(97.8)	184(47.3)
Parent education experiences	yes	118(46.5)	41(31.1)	159(40.9)
	no	136(53.5)	91(68.9)	227(58.4)
			deficit 3	deficit 3

Values in the parentheses are percentages.

근로자 135(34.7%), 대학생 부모교육 경험 유 118(30.6%), 무 136(35%), 근로자 부모교육 경험 유 41(10.5%), 무 91(23.1%), 결측 3(8%)을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1)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은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1점)', '반반이다(1점)', '대체로 그렇다(1점)', '정말 그렇다(1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응답가능 범위는 11점에서 5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아동기 양육 경험

Baumrind(1973)의 부모양육 척도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공인숙(1989)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이용해 아동기 양육 경험을 측정하였다.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의 경험 여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렇다(3점)', '자주 그러는 편이다(4점)', '늘 그러는 편이다(5점)'의 1점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응답가능 범위는 5점에서 25점이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54로 나타났다. 5개의 문항수를 고려해 볼 때 신뢰도 점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 양육행동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3) 양육 지식

아동발달에 관한 선행연구(유안진 2002; 정옥분 2002; Berk 1996, 2000; Shaffer 2000, 2002)를

기초로 부모역할에 필요한 양육 지식을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로 나누었다. 태아기 지식은 8문항으로 구성하고, 영유아기는 비신체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중요한 사항을 아동학 박사학위소유자 5인의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아동학 관련 전공자 5명이 선행 연구 및 아동 발달 관련 문헌을 토대로 아동 양육 지식 측정을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아동 양육 지식은 (1) 태교 영역, (2) 비신체적 발달 영역, (3) 신체적 발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저 그렇다(3점)',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태교 영역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7이며, 8점에서 32점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비신체적 발달 영역은 인지, 사회, 정서 발달에 관한 것으로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54이며, 7점에서 28점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신체적 발달 영역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56이며, 6점에서 24점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4) 부모교육 경험

대학에서 아동발달 및 부모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사내 교육이나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관련 강좌를 수강한 사람으로 조작 정의한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Win SPSS 9.0의 t 검증, 일원변량 및 이원변량분석, Scheffe'의 추후 검증 및 Duncan검증,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청소년들의 양육 효능감,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 지식(태교영역, 비신체 영역, 신체영역)의 전체 평균 점수, 표준편차, 최대-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and reliability of parenting effectiveness and parenting knowledge

Variables	Mean(SD)	Minimum-Maximum scores	Number of items (Likert scores)
Parenting Effectiveness	41.00(5.52)	22-55	11(5 Likert)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20.00(2.76)	5-25	5(5 Likert)
Parenting Knowledge			
Prenatal development Knowledge	27.77(2.65)	14-32	8(4 Likert)
Non physical development Knowledge	17.56(2.37)	8-26	7(4 Likert)
Physical development Knowledge	20.10(2.21)	13-24	6(4 Likert)

1.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효능감을 이원변량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대학생과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및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또는 각 독립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양육효능감은 대학생과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학생과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효능감을 사회적 신분과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375)=13.29, p<.001$).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기 양육 경험에 따른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을 Scheffe' 검증을 통해 살펴보면,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양육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태도 경험이 낮은 집단은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wo way ANOVAS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sex and social status, and by age and social status

Sex	Variables	SS	df	MS	F
	Social Status	10.370	1	10.37	.34
	Sex	46.02	1	46.02	1.51
	Social Status×Sex	24.31	1	24.31	.80
	Error	11559.58	379		
	Total	655481.00	383		
Age	Variables	SS	df	MS	F
	Social Status	3.51	1	3.51	.11
	Age	4.08	1	4.08	.13
	Social Status×Age	1.56	1	1.56	.05
	Error	11615.89	379		
	Total	655481.00	383		

Table 4. Two way ANOVA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social status and parenting experiences

Variables	SS	df	MS	F
Social Status	9.82	1	9.82	.35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755.68	2	377.84	13.29***
Social Status×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156.66	2	78.32	2.76
Error	10659.58	375	28.43	
Total	651481.00	381		

*** p<.001

Table 5. Mean and Scheffe' test of parental effectiveness by parenting experiences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Parenting Effectiveness Mean(SD)	F	Scheffe'
High score Group(109)	42.77(.57)	13.29	a
Medium Group(161)	41.32(.45)	(df=2,375)	b
Low Group(111)	38.93(.51)		c

*** p<.001

Not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 b, and c by Scheffe' Test.

3.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지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효능감을 청소년의 사회신분과 양육지식에 따라 이원변량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지식 중 태교 지식(F(2,372)=8.03, p<.001) 및 신체 영역 지식(F(2,380)=6.6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태교 지식 및 신체 영역 지식에 따른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을 Scheffe' 검증을 Table 7을 통해 살펴보면, 태교 및 신체 영역 지식이 높은 대학생과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양육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교 및 신체 영역 지식이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양육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효능감을 청소년의 사회신분과 부모교육경험에 따라 이원변량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부모교육 경험(F(1,376)=7.82,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교육 경험에 따른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을 집단간 비교를 Table 9과 Table 10을 통해 살펴보면, 대학생 및 근로자 모두 부모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양육 효능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1, p<.001) (F(3,376) =2.66, p<.05).

Table 6. Two way ANOVAS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social status and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Knowledge	Variables	SS	df	MS	F
Prenatal Development					
	Social Status	74.14	1	74.14	2.55
	Prenatal Development	466.47	2	233.23	8.03***
	Social Status×Prenatal Development	62.76	2	31.38	1.08
	Error	10805.68	372	29.05	
	Total	647538.00	378		
Non physical Development					
	Social Status	6.32E-02	1	6.32E-02	.002
	Non physical Development	81.53	2	40.77	1.36
	Social Status×Non physical development	72.68	2	36.34	1.21
	Error	11012.86	368	29.93	
	Total	640827.00	374		
Physical Development					
	Social Status	1.40	1	1.40	.83
	Physical Development	410.48	2	205.24	6.92***
	Social Status×Physical development	71.42	2	35.71	1.20
	Error	11169.70	377	29.68	
	Total	655481.00	383		

** p<.01, *** p<.001

Table 7. Mean and scheffe' test of parental effectiveness by parenting knowledges

Parenting Effectiveness	M(SD)	F	Scheffe'	
Prenatal development knowledge	Hi Score group	42.42(.66)	8.03***	a
	Medium group	41.69(.46)		a
	Low group	39.35(.55)		b
Physical development knowledge	Hi Score Group	42.32(5.71)	6.63***	a
	Medium group	40.97(5.38)		ab
	Low group	39.44(5.26)		b

*** p<.001

Not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 b, and c by Scheffe' Test.

Table 8. Two way ANOVA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social status and parent education

	SS	df	MS	F
Socail Status	9.77	1	9.77	.32
Parent Education	236.30	1	236.30	7.82**
Social Status×Parent Education	29.82	1	29.82	.99
Error	11367.17	376	30.23	
Total	651123.00	380		

** p<.01

Table 9. T-test of parenting effectiveness by parenting education

Parent Education Experiences	Parenting Effectiveness		t value
	Mean(SD)		
Yes(155)	41.91(5.23)		2.61**
No(225)	40.41(5.67)		

** p<.01

Table 10. Means and scheffe' test of parental effectiveness by parenting knowledges

Group	Parenting Effectiveness /Scheffe'		F
College/Yes(117)	41.67(5.19) /ab		2.66* (df=3, 376)
College/No(135)	40.56(5.67) /b		
Worker/Yes(38)	42.66(5.33) /a		
Worker/No(90)	40.19(5.69) /b		

* p<.05, ** p<.01, *** p<.001

Not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 and b.

5.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아동기 양육 경험, 양육 지식 및 부모교육 경험 유무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아동기 양육 경험, 양육 지식 및 부모교육 경험 유무 등으로 중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부모교육 경험, 아동기 양육경험, 태교 지식, 비신체적 지식 및 신체적 지식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서 제시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β값은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표시하기 때문에(정충영·최이규 1997),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분석결과 이들 변수는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을 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8,354)=7.86, p<.001, adjR²=.13). 한편 이들 변수 중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은 성별(β=.13, p<.05), 부모교육 경험(β=.13, p<.01), 아동기 양육 경험(β=.24, p<.001), 태교 지식(β=.14, p<.01), 신체 영역 지식(β=.16, p<.01)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양육 경험은 대학생과 근로자의 양육 효능감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를 위한 각각의 특성화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생과 근로자 간의 자녀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즉, 대학생

Table 11. Sex, age,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education as predictors of parenting effectiveness: multiple regressions (n=363)

Predictors	Parenting Effectiveness	
	B	β
Constant	10.59(4.92)	
Sex	1.46(.57)	.13*
Age	.5.92E-02	.06
Social Status	-.86(.72)	-.07
Parent Education	1.39(.56)	.13*
Experiences		
Childhood Parenting	.49(.10)	.24***
Experiences		
Prenatal development	.31(.12)	.14**
Knowledge		
Non physical		
development	.11(.12)	.05
Knowledge		
Physical Development	.40	.13**
Knowledge		
F (df=8,354)	7.86***	
R ²	.15	
adjR ²	.13	

* p<.05, ** p<.01, *** p<.001

Dummy Variables Sex: boy 1, girl 0

Social status: college 1, worker 0, Parent Education Experience: Yes 1, No 0

과 근로자의 성별, 연령,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 지식, 그리고 부모교육경험에 따른 대학생과 근로자간의 자녀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학생이라는 청소년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분화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신분에 상관없이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중장년기의 부모들에 비해서 학습능력이 큼으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 및 조건들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인간발달 단계상으로도 다음 단계의 결혼과 부모됨을 위한 훌륭한 준비가 될 것이다.

특히, 모든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었다고 지각하는 경우 자신의 미래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자신을 보였다. 이는 박화윤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또한 자신의 자녀양육 신념체계에 가족이라는 미시체계가 영향을 미

친다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맥락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아동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이전에 부모교육을 어떠한 형식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 미래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효능감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의 부모교육프로그램 구성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및 실제 양육기술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만 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청소년에게 앞으로 그들이 형성하게 될 미래 가족의 순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장차 부모가 될 예비 부모들을 위한 교육내용은 아동 발달을 내용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먼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사회교육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교육 강좌를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할 필수 과

목으로 각 대학에 권장하고, 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산업현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이 수강하도록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예비부모들 중 부모교육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거나 사회적 복지지원의 부족과 사회적 질타등으로 음지에 숨어있는 심대 미혼모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부모교육은 방법이나 내용, 그리고 기관이나 체계도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이다. 특히 자녀 지도 면에서는 내 자녀의 지도의 중요성과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지도효과를 고양하기 어렵다. 사회적이고 국가적 지원과 여건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밝고 안정된 자녀 양육을 통한 건강 가족 형성에 필요한 잠재력 개발 효과가 있으며, 이혼과 가족 해체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정 및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할에 대한 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59.
 김정원·이기숙(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83-197.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4), 189-197.
 박성연·김상희·김지신·박응임·전춘애·임희수(2003).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박장희·정옥분(2002). 복합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체계유형과 청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49-63.
 박화윤·최재숙·마지순(2002).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오윤자·조소연(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57-168.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안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유은희·홍숙자(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6(1), 157-168.
 이영분(1990). 부모역할 훈련을 위한 한국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충영·최이규(1997).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통계청(2001). 2001년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 편).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한국부모교육학회(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Abidin RP(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1-412.
 Barnes H, Olson D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Wilson M(Eds.).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Baumrind D(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7.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Berk L(1996). Infants and children-Prenatal through middle childhood-. MA: Allyn & Bacon.
 Berk L(2000). Child development.(5th Ed.). NJ: Merck, Sharp, & Dohme Research Laboratories.
 Bronfenbrenner U(1979). They need parent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4, 767-787.
 Dorsey S(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Floyd F, Gilliom LA, Costigan CL(1998). Marriage and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Rodrique JR, Geffken GR, Clark IE, Hunt F, Fishel P (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Shaffer DR(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CA: Wadsworth.

Shaffer DR(2002). *Developmental psychology*(6th. Ed.). CA: Wadsworth.

Teti DM, Gelfand D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 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